

구성과 특징 Structure

INTRO

수능 국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수능 국어는 2022년도 시험부터 '문법·어휘(문법·어휘)·언어·문학·언어와 사회'의 4개 영역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과목은 출제율과 선택과목은 인원과 관계없는 과목과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제된다. 즉, 총 4과목 중, 출제과목은 3과목이고, 선택과목은 1과목이다.

문법·어휘

특히 지문은 **제어영도** (㉠ 심화(문법·어휘), ㉡ 사회(문법·어휘), ㉢ 예술, ㉣ 과학(생물·화학·물리·지식, 지구과학 등), ㉤ 기술(다중·과학기술 등), ㉥ 문화·예술) 등으로 나눌 수 있어, 수능 국어에서 두세는 출제영역이 출제된다.

문법 지문은 **장어영도** (㉠ 현대사, ㉡ 현대사, ㉢ 고대사, ㉣ 고대사, ㉤ 수필 등)이 있고

① **작품의 내용에 대한 사실적·주문적 이해를 묻는 문제**

특히 영역뿐만 아니라 문법 영역에서도 해당 기문 이 되는 문제는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수능 국어 출제되는 문법 작품은 해당 영역이 아니라, 문법 영역 작품 출제되는 것이다. 문법은 출제되는 영역과 해당 영역의 문법 영역에 속한 작품을 여러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문법 영역 출제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법 영역에서 학문 문헌의 내용을 배우고 정확하게 고르기 어렵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수능 문법 작품에도 철저한 사실 관계를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작품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그릴 수 있는지를 기본에서 고득점을 찾아볼 때이다.

문법·어휘

문법·어휘는 문법·어휘(문법·어휘) 영역에 속해 있으며, 문법·어휘(문법·어휘) 영역에 속해 있다.

특히, 문법·어휘(문법·어휘) 영역에 속해 있으며, 문법·어휘(문법·어휘) 영역에 속해 있다.

문법·어휘(문법·어휘) 영역에 속해 있으며, 문법·어휘(문법·어휘) 영역에 속해 있다.

문법·어휘(문법·어휘) 영역에 속해 있으며, 문법·어휘(문법·어휘) 영역에 속해 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수능 국어 전체의 체계를 안내합니다. 또한 문제 유형을 중심으로 수능 국어 문학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분석하고, **선지 판단 전략**에서 각 유형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PART 1

필수 문학 개념어

(1) 자연 친화

STEP 1 개념 이해하기

-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개별적 물체.
- **자연**: 자연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계, 공간.
- **친화**: 사이좋게 잘 어울림.
- **탈속**: 속세를 벗어나, 주로 고전 문학에서는 정처하는 곳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고, 현대 문학에서는 도시에서 벗어남을 의미함.

자연 친화는 자연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을 가리키, 즉 자연 속에 있으면서 자연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며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자연을 예찬하고 사랑하면서 자연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모습 등이 보인다면 작품에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 이러한 태도를 넘어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드러낸다면 이는 **자연과 합일**을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지.

일반적인 사회 공간을 속세 또는 **세속**이라고 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탈속**이라고 해.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에서는 자연에 대해 속세와 대비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표현돼. 그렇기 때문에, 통해 친화적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STEP 2 문제로 확인하기

해설 P.006

1-4 다음을 읽고 선지의 적용성을 판단해 보세요.

2020학년도 9월

곳은 비 떨어 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비 따라 비 따라
 남산에 둘러싸니 깊은 흥(興)을 못 금(禁)하려다
 지극을 지극을 아사위
 『연경(演經)』 참경(參禪)은 남(南)이 그려남고 (하(夏) 1)
 - 윤선도, 『아부사사(阿彌陀佛經)』 -

- **연경**: 연가 만 경.
- **참경**: 참선이 들어간 산방수리.

1. ㉠은 최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이를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문학 개념어 30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양한 예시 작품을 통해 개념어의 정의와 선지의 판단 기준을 익히고, 문제 풀이를 통해 적용 학습을 진행합니다.

1 쉽고 친절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수능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수능 국어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고3, N수생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쉽고 친절한 말투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단계별로 차근차근!

STEP 1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학습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STEP 2에서는 확인 문제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점검합니다. **확인** **관련하기**에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웁니다. STEP 2와 **실전** **관련하기**에서는 **고1** → **고2** → **고3** 순서로 문제를 제시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혼자서도 어려움 없이, 강의와 Q&A로 막힘없이!

독학용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나, 보다 깊고 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에 대한 강의(유료)를 제공하고 Q&A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강의는 대성마이맥 홈페이지(www.mimacstudy.com), 교재 질문은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PART 2

갈래별 지문 읽기 및 문제 풀이 전략

(1)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읽어야 한다.

STEP 1 전략 세우기

수능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상을 위해 소설을 읽는다면 특별한 읽기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간을 제한해 두고 빠르게 읽을 필요도, 작품의 어느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소설 읽기와 소설 지문 읽기는 달라. **소설**은 작가가 창작한 작품 그대로이지만, **소설 지문**은 작가의 작품을 출제자가 선택적으로 편집해서 보여 준 것이다. 그래서 소설은 긴 호흡으로 천천히 즐기며 읽어도 좋지만, 소설 지문은 순간적인 집중력을 동원해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어야 해. 그렇다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소설 지문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서술자와 인물 파악하기' 그리고 '장면 끊어 읽기'가 바로 그 방법이다.

① 서술자 찾기

시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상의 화자와 시적 대상을 설정하여 화자와 대상이 처한 상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소설에서 작가는 화자 대신 서술자의 입을 통해 인물의 처한 상황을 서술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며, 따라서 소설 지문을 읽을 때는 먼저 서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해.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서는 28쪽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해.

적으로 지문을 읽는 훈련을 해나간 거야. 그 구체적인 방법이 서술자를 찾고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이해하는 것, 장면을 끊어가며 읽는 것인 거지. 그런 지금까지 세운 전략에 따라 작품을 읽고 '본것 작품 정리'를 채우며 현대소설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보자.

현대시부터 극·수필까지 수능 국어 문학 갈래별 지문 읽기 및 문제 풀이 전략을 소개하고 **1등급 전략**에서 그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1분컷 작품 정리**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해설에도 지문을 수록하고, 지문을 읽으며 파악했어야 할 요소 등을 시각화하여 보여 줍니다. 모든 선지를 상세하게 풀이한 것은 물론 **X** 표시로 선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 짚고 가기**에는 **1등급 전략**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내용을, **개념 더하기+**에는 더 알아 두면 좋을 개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Contents

INTRO

수능 국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PART 1 필수 문학 개념어

1. 본격적인 공부 전에 알아야 할 수능 국어의 상식 011
2.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한 이해 013

1. 화자와 서술자

- (1) 화자와 시적 대상 024
- (2) 서술자와 시점 028
- (3)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033

2. 주제 의식과 태도

- (1) 자연 친화 037
- (2) 인간과 자연의 대비 041
- (3) 성찰, 반성 044
- (4) 극복 의지 048

3. 표현 기법

- (1) 비유, 상징 053
- (2) 환기 058
- (3) 역설 063
- (4) 반어 066
- (5) 도치 070
- (6) 설의, 의문형 어투 073
- (7) 운율, 반복, 연쇄 077
- (8) 대구, 통사 구조의 반복 083
- (9)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087
- (10)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092
- (11) 정적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 097
- (12) 계절감 101
- (13) 풍자, 해학 106
- (14) 언어유희 110

4. 사상 전개와 구성 방법

- (1) 사상, 사상의 전환 117
- (2) 수미상관, 선경후정 121
- (3) 원경, 근경 125
- (4) 갈등의 심화와 해소 130
- (5) 전기성, 초월적 인물 134
- (6) 회상, 역행적 구성 138
- (7) 액자식 구성 146
- (8) 직접 제시, 간접 제시 152
- (9) 요약적 제시 157

PART 2

갈래별 지문 읽기 및 문제 풀이 전략

1. 현대시

- (1) '최소한의 이해'를 목표로 삼고 읽어야 한다. 176
- (2)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183

2. 현대소설

- (1)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읽어야 한다. 200
- (2)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14

3. 고전시가

- (1) 사대부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해야 한다. 240
- (2) <보기>가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56

4. 고전소설

- (1) 고전소설만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276
- (2) 인물의 '긴 말'은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294

5. 극·수필

- (1) 희곡은 희곡답게, 시나리오의 시나리오답게 읽어야 한다. 316
- (2) 유사한 것들은 묶고, 대립 관계는 선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327

본격적인 공부 전에 알아야 할 수능 국어의 상식

수능 국어의 체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수능 국어의 체계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머릿속에 국어의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공부를 할 때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래야 공부의 결과가 제대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야. 서랍에 짐을 정리하기 전에 서랍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각 서랍에 무엇을 넣을지 계획을 먼저 세우면 많은 짐을 쉽고 빠르게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짐을 적절한 순간에 빼내어 사용할 수도 있겠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엇에 대해 배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그 공부는 효율적인 공부가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라도 도움이 될 거야.

수능 국어는 2022학년도 시험부터 '공통과목(문학 + 독서) +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or 화법과 작문)'의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선택과목은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돼. 총 45문항 중, 공통과목은 34문항이고, 선택과목은 11문항이야.

공통과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1 국어 영역 [출시형]

1.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2.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3.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4.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5.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6.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7.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8.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9.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10.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독서

12 국어 영역 [출시형]

1.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2.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3.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4.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5.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6.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7.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8.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9.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10.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11.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12. 국어 영역의 구성과 범위

문학

독서 지문은 **제재**별로 ① 인문(철학 등), ② 사회(법, 경제 등), ③ 예술, ④ 과학(생명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등), ⑤ 기술(기술 원리, 기계 장치 등) 등으로 나눌 수 있어. 수능 국어에서 독서는 총 17문항이 출제돼.

문학 지문은 **갈래**별로 ① 현대시, ② 현대소설, ③ 고전시가, ④ 고전소설, ⑤ 극, ⑥ 수필 등이 있고, 수능 국어의 문학은 독서와 마찬가지로 총 17문항이 출제돼.

○ 공통과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공통과목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갖춰야 한다고 여겨지는 배경지식과 어휘력, 독해력 등'을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갈 것을 요구해. 다만 이때 '지문의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사고력과 배경지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 그러니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내신 공부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수능 국어 영역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무엇을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실전에 적용해 보는 공부 과정도 필요해.

1

화자와 서술자

(1) 화자와 시적 대상

STEP 1 개념 이해하기

- **화자**: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 **시적 대상**: 시에서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인 **화자**는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진달래꽃」에서는 ‘나 보기가 역겨워’에 화자가 ‘나’라고 드러나 있지? 이렇듯 작품에 ‘나’ 또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으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면 돼.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잔무: 다 끝내지 못하고 남은 일.

시를 읽을 때에는 화자뿐만 아니라 화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인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해. 「동승」에는 ‘나’라는 화자가 나타나는데, 이 화자는 국철에서 보게 된 ‘아시안 젊은 남녀’,

고1 2022학년도 6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1. 작품의 표면에 나타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2 2018학년도 9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짝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
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아리다: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다.

2.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3. 화자의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대상이 처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

현대시

(1) '최소한의 이해'를 목표로 삼고 읽어야 한다.

STEP 1 전략 세우기

많은 학생들이 현대시를 공부하며 혼란에 빠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몹시 이상적인 시 해석법을 공부한다. 둘째, 배운 해석법으로 시를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배운 해석법이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되지 않아서 다른 완벽한 시 해석법을 배우려고 한다.”

이처럼 ‘시를 해석하는 것’과 ‘시 문제를 푸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시 해석이 되지 않아요. 배운 해석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면서 시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따라서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시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은 시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 시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이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려고 해. INTRO에서도 언급했듯이 ‘최소한의 이해’를 넘어선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에서 출제자가 하는 거야. 우리는 시 지문과 선지, 제시되어 있다면 <보기>까지를 고려하여 출제자의 해석이 적절한지 판단하면 되는 거고.

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선지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을 만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그럼 그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 시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자!

① 화자와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찾기

모든 시에 **화자**는 100% 존재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냐, 이면에 감추어져 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화자는 시 속에서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대개 화자가 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있어. 따라서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화자와 시적 대상을 파악**해야 해. 이때 시적 대상은 사람, 동물, 자연물, 인공물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타날 수도 있지. 시의 제목에는 시적 대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제목을 잘 살펴보는 것 잊지 마!

② 대상의 속성 파악하기

화자나 시적 대상을 찾았다면 이들이 시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해. 이는 화자가 대상에 주목하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테니 **대상의 속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체크**를 하며 읽도록 하자. 이때에도 시적 대상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들끼리 묶고, 대상의 대립 관계를 파악**하는 정도로 시를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쉽게 말해 긍정적 대상과 부정적 대상,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처럼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거지. 단순한 구분은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거든!

③ 화자의 정서, 태도 파악하기

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시 전체에 흐르는 **정서**를 파악하는 거야. 이때 ‘정서’는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아. **화자가 느끼는 감정, 화자의 가치관, 태도 등이 모두 화자의 정서**라고 볼 수 있지. 어려워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현대시를 접하거나,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마지막으로 현대시 지문이 남아 있다면? 기본적인 정서만 파악하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는 전략을 쓰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

1~2 다음을 읽고 1분컷 작품 정리를 채운 뒤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세요.

고1 2018학년도 3월

화자, 대상, 정서·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에 표시하며 읽어 보라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왯가왯 울며 새웠소.

오늘은 /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곽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도.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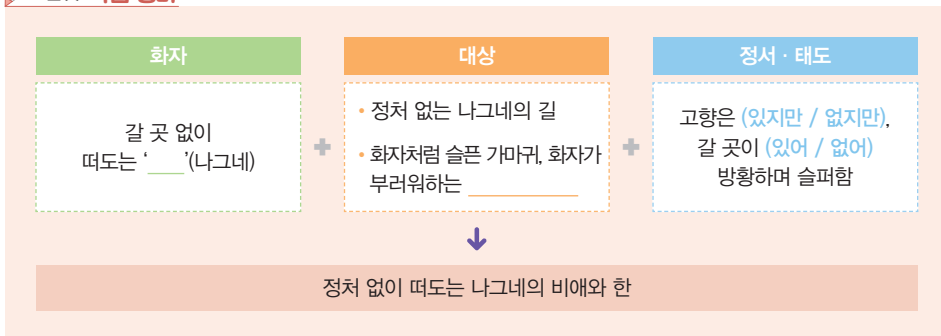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정주 곽산: 김소월의 고향. / ●바이: 아주 전혀.

●복판: 일정한 공간이나 사물의 한가운데.

1분컷 작품 정리



- ㉠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2

현대소설

(1)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읽어야 한다.

STEP 1 전략 세우기

수능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상을 위해 소설을 읽는다면 특별한 읽기 전략이 필요하진 않을 거야. 시간을 제한해 두고 빠르게 읽을 필요도, 작품의 어느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지. 하지만 소설 읽기와 소설 지문 읽기는 달라. **소설**은 작가가 창작한 작품 그대로이지만, **소설 지문**은 작가의 작품을 출제자가 선택적으로 편집해서 보여 준 것이지. 그래서 소설은 긴 호흡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도 좋지만, 소설 지문은 순간적인 집중력을 동원해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어야 해. 그렇다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소설 지문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서술자와 인물 파악하기’** 그리고 **‘장면 끊어 읽기’**가 바로 그 방법이야.

① 서술자 찾기

시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상의 화자와 시적 대상을 설정하여 화자와 대상이 처한 상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소설에서 작가는 화자 대신 서술자의 입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서술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 따라서 소설 지문을 읽을 때는 먼저 **서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해.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서는 28쪽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해.

② 인물 파악하기

서술자를 찾았다면 서술자가 관심을 갖고 서술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이고,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심리와 태도를 드러내는지를 파악하면 돼. 이를 위해서 우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네모 박스 등으로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자! 등장인물이 2-3명 나오는 소설 지문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지문도 있고, 동일한 인물을 서로 다른 호칭어나 지칭어로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 만큼 등장인물을 찾을 때마다 표시를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서술자의 설명,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 개별 인물의 **심리나 태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에도 밑줄을 치며 인물의 반응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개별 인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인물들이 서로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 파악하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거든. 마지막으로 지문에서 **인물**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지점이 나타나면 그 부분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특히 주목해야 해!

주요 사건

- ▶ 장면 1 '나'는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권태와 짜증을 느낌
- ▶ 장면 2 '나'는 며칠 전 다방에서 나미에게 전쟁터에서의 일을 이야기함
- ▶ 장면 3 '나'는 D고지에서 ○○연대까지 물을 실어주러 가는 길에 한병장과 대화함
- ▶ 장면 4 '나'는 기다리던 노인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방에서 뛰어나감

각 장면을 사건이 일어난 실제 시간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

시간 순서에 따른 장면 재배열

- ▶ 장면 3 '나'는 D고지에서 ○○연대까지 물을 실어주러 가는 길에 한병장과 대화함
- ▶ 장면 2 '나'는 며칠 전 다방에서 나미에게 전쟁터에서의 일을 이야기함
- ▶ 장면 1 '나'는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권태와 짜증을 느낌
- ▶ 장면 4 '나'는 기다리던 노인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방에서 뛰어나감

장면을 시간 순서에 따라 파악할 수 있어야 지문에 제시된 사실 관계나 사건 간의 인과관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자.

우리가 하나의 소설을 완독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존재할 수 있어. 단순히 내용이 쉽고 어려운 것의 문제를 떠나 작가가 작품 속에서 모든 것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자인 우리는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를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추측하며 소설을 읽게 되지. 이렇듯 한편의 소설을 온전히 읽어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소설의 일부를 편집해서 만든 지문만 보고 모든 내용을 완벽히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어. 문제와 함께 제시되는 <보기>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수준일 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러니 우리는 소설 지문을 읽고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지문을 읽는 훈련을 해나갈 거야. 그 구체적인 방법이 서술자를 찾고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이해하는 것, 장면을 끊어가며 읽는 것인 거지. 그럼 지금까지 세운 전략에 따라 작품을 읽고 '분컷 작품 정리'를 채우며 현대소설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보자.

1분컷 작품 정리

주요 인물	주요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물댁: 남편의 _____ 와 유골을 받고서도 남편이 생존했을 것이라 믿음 ▶ 영감: 징용으로 _____ 에 끌려갔다가 사고 당시 도망쳐 집으로 돌아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 1 한물댁은 _____ 가 죽었다고 들었지만 믿지 않음 ▶ 장면 2 왜정 때 징병에 끌려간 영감은 _____ 사고를 계기로 도망침 ▶ 장면 3 사망 통지서와 유골이 오자는 충격으로 세상을 뜨지만 한물댁은 남편이 살아 있다고 믿음
<input type="checkbox"/> 1인칭 주인공 <input type="checkbox"/> 1인칭 관찰자 <input type="checkbox"/> 3인칭 관찰자 <input type="checkbox"/> 전지적 작가 시점	

▶ 작품의 시점으로 적절할 것에 체크해 보!

주요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정리해 보!

▶ 각 장면의 핵심 사건을 정리해 보!

1등급 전략

- ✔ 전략 1 서술자와 시점을 파악한다.
- ✔ 전략 2 인물 간의 관계,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파악한다.
- ✔ 전략 3 공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삼아 장면이 바뀌면 끊어가며 읽는다.

장면을
4개로 끊고
등장인물에
표시하여
읽어 보!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세 놓고 욕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음의 배참봉 맥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톱 뾰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단다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푹푹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려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영금 영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신굶신하는 게 아닌가 —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덩덤히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퓌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놔다. 사날씩이나 건승 꿈, 꿈, 앓았더니 종당에는 겨만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울갈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눈을 혼자 살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심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둥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 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이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남 낮짜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중략)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줄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털 자랐다. 남은 잘도 흰칠히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몽푹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썰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등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후후이 먹음직하니

-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 **작인:**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
- **품:** 일을 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주로 남의 일을 해 줄 때의 노동력을 가리킨다.
- **무색하다:** 겸연쩍고 부끄럽다.
- **울화:** 마음속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화.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현대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서 깨빡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발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나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나까,

“성례^{*} 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셈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덩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 김유정, 「봄·봄」-

•내외: 남의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함.

•성례: 혼인의 예식을 지냄.

1분컷 작품 정리

주요 인물	주요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장인이 시키는 일을 하며 _____ 와 혼례 올릴 날을 기다림 • 장인: 마름 일을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_____ 을 잃음. '나'에게 온갖 일을 시키면서 점순이와의 혼례는 미룸 • 점순이: 장인에게 _____ 시켜 달란 말을 하라며 '나'를 보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 1 장인은 _____ 이란 지위로 마을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인심을 잃음 ▶ 장면 2 장인은 '나'가 도망갈까 봐 '나'에게 큰소리 치지 못하면서도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줌 / 시켜 주지 않음) ▶ 장면 3 '나'는 봄 풍경을 보며 가슴이 울렁거리고 _____ 가 크지 않는 점순이 때문에 속이 상함 ▶ 장면 4 점순이는 성례를 시켜 달라 말하라고 보채고 '나'는 내심 _____ 함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이'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는 '장인'의 태도 때문이다.
- '동리 사람들'에게 '장인'이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나'와 '점순이'의 혼례를 치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전 훈련하기

1~3 다음을 읽고 1분컷 작품 정리를 채운 뒤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세요.

고1 2019학년도 3월

장면을
3개로 끊고
등장인물에
표시하여
읽어 보!

S#49. 몽타주

- 산채 정식처럼 각종 산나물과 된장찌개를 정갈하게 무치고 끓이고 소박한 상을 정사에게 올리는 장금.
- 사신, 먹으며 가운데 미간이 찡그려진다.
- 보는 장금과 장번 내시, 오겸호, 불안하고,
- 다음날은 각종 해조류 반찬이 눈에 띄게 많은 밥상.
- 보는 정사. 미역국에 고기 대신 생선이 들어가 있다.
- 먹고는 역시 가운데 미간이 찡그려지는 정사.
- 보는 장금과 장번 내시, 오겸호, 불안.
- 흰 생선 살을 잘 발라내고 있는 장금.
- 생선 살을 넣은 두부로 두부전골을 끓이는 장금.
- 두부전골을 중심으로 올려지는 상.
- 먹어 보고는 역시 미간이 심하게 찡그려지는 사신 정사.
- 말린 나물과 버섯들을 걷어 가는 장금.
- 대나무 밥을 하는 장금.
- 사신에게 올려지는 상. 보면 물김치와 툇나물, 버섯나물과 산나물 그리고 대나무 밥이 올려져 있고.
- 먹고는 미간을 찡그리는 사신의 모습.
- 보는 장금의 모습.

S#55. 태평관 연회장

들어오는 장금, 보면,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상이 있다. 이때, 오겸호와 장번 내시가 사신을 모시고 나오고, 상을 보는 정사, 놀라는데, 그를 바라보는 최 상궁과 금영의 표정에 자신감이 넘친다. 한 견에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장금.

오겸호: 그동안 (장금을 보며) 궁녀의 불경한 짓거리로 본의 아니게 무례를 저질렀 습니다.

정사: …….

오겸호: 하여 오늘부터는 만한전석을 올릴 것입니다!

정사: 만한전석을? (장금을 본다.)

오겸호: 오늘은 저 불경한 것의 처벌이 있는 날이니 원하시는 대로 벌을 내리고 마음껏 드십시오!

장금: …….

금영: (장금을 보는데)

작품의 내용에 대한 사실적·추론적 이해를 묻는 문제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 상궁은 정사의 뜻을 알고 장금에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다.
- ② 장금과 금영은 정사가 먹을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였다.
- ③ 정사는 오겸호의 조언에 따라 장금이 만든 음식을 억지로 먹고 있었다.
- ④ 오겸호는 만한전석을 준비하라고 한 정사의 지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⑤ 정사는 떠나는 날까지 음식을 준비하라고 할 만큼 장금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외적 증거를 참고한 작품의 감상을 요구하는 문제

2. <보기>를 통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음식은 먹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자 맛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둘은 상충되기도 하지만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대장금」은 다양한 음식을 소재로 한 일련의 사건과 음식에 대한 소신을 지키는 장금의 모습에서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 ① 정사는 '소갈'에 걸리고도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맛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군.
- ② 장금이 정사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생선'과 '산나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을 올리는 것은 정사의 건강을 우선시했기 때문이군.
- ③ 정사는 장금이 만든 음식에서 '재료 고유의 맛'을 느끼며 건강을 지키는 것과 맛에 대한 욕망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군.
- ④ 장금은 정사가 '만한전석'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선호하는 것을 보고 음식을 먹는 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며 안타까워했군.
- ⑤ 장금이 위험을 무릅쓰고 먹는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고집하는 것에서 '음식을 하는 자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소신을 확인할 수 있군.

작품의 표현상 또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3. S#49를 제작하기 위한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장금의 솜씨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손을 클로즈업하면 좋겠습니다.
- ② 이틀에 걸친 사건을 짧은 장면으로 이어 붙인 장면입니다. 사건이 속도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하면 좋겠습니다.
- ③ 불안해하는 오겸호를 담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배우의 표정 연기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도록 연출을 하면 좋겠습니다.
- ④ '음식 준비-사신의 시식-장금의 기대-사신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장면들을 편집하면 좋겠습니다.
- 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성이 드러나도록 당시의 의복과 소품을 고증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표현 기법

(1) 비유, 상징

STEP 2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P.055

- [A]와 [B]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고난에 처했음을 부각하고 있다. ◎
 [A]에서 용왕은 '하운데 한 병이 깊이 들어 몸의 위태로움이 바늘 방석에 앉은 듯하고'라고 하여 자신이 깊은 병에 드는 고난에 처했음을 '바늘 방석에 앉은' 상황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B]에서 토끼는 '용왕에게 원망을 사서 결박하여 섬돌 아래 놓이니 절인 생선이 줄에 꼬인 듯하고 전상에서 호경하니 뜨거운 불바람이 부는 듯합니다.'라고 하여 자신이 용왕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음을 '생선이 줄에 꼬인' 것과 '뜨거운 불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 [B]의 '도라지꽃 같은' '내 마음의 빛깔'은 [A]의 '애기 구름'같이 연약했던, ~~화자의 사랑이 화려한 결실을 맺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 ✕
 뒷글의 [A]에서 화자는 '처음 내 마음'이 '아지랑이', '애기 구름' 같았다고 하며 '그'를 만나기 전의 마음에 대해 말하였다. 한편 당신이 '다시 그를 데려가서' '그'와 이별한 뒤를 표현한 [B]에서는 '내 마음의 빛깔'이 '도라지꽃 같'다고 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즉 [A]의 '애기 구름'은 아직 '그'를 만나기 전 화자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B]는 이별 이후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도라지꽃 같은' '내 마음의 빛깔'은 화려한 사랑의 결실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A]의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다. ◎
 뒷글의 [A]에서 '나무는' '영하 13도 / 영하 20도 지상에' 뿌리를 박고 '무방비의 나뭇'으로 서 있다고 했다. 따라서 [A]의 '두 손'은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뒷글에서 '푸르른 사월 하늘'을 들이받는 [B]의 나무는 봄-나무로 볼 수 있다. [B]에서 '온몸이 으스스리도록' '씩씩 내밀고' '푸른 잎이 되'는 것은 나무 내부의 힘과 노력으로 싹을 틔우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뜨거운 혀'는 싹을 틔우려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A]의 '벌'은 겨울-나무의, [B]의 '씩'은 ~~봄-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
 [A]의 '벌'은 겨울-나무가 혹독한 추위로 인해 겪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B]의 '씩'은 봄-나무의 고통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상징한다.

(2) 환기

STEP 2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P.059

- '저 가지들'을 보고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에서 화자의 정서가 매화나무로부터 환기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뒷글의 화자는 '매화나무 가지'에 '꽃봉돌'이 생겨 있는 것을 보고 있다. 화자는 '먼 바닷가'에 가서 '홀로이 생각에 젖었다' 오고 싶은 '수련한 심정'을 느끼며, 이는 '저 가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 /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 즉 화자의 '수련한' 정서는 매화나무를 바라볼 때 환기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가)와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가)는 1연과 3연에서 '왔단다', '아니란다'라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단다.'에 사용된 '-단다'라는 어미는 화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청자에게 알려 줄 때 쓰이는 어미이다. 따라서 (가)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주의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개념 더하기⁺

-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은 작품 속에 청자가 존재하거나, 청자를 전제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해, '그리운 산아'처럼 청자를 호명할 수도 있고, '-단다'처럼 청자를 전제한 종결 어미를 사용할 수도 있어.

4 시상 전개와 구성 방법

(1) 시상, 시상의 전환

STEP 2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P.118

1

[현대어 풀이]

구름 빛깔이 깨끗하다고 하나 검어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나 그칠 때가 많구나
깨끗하고도 그칠 때가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제2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른 듯하다가 곧 누른빛을 띠는가?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깊은 땅속까지 뿌리가 곧게 뻗은 줄을 그것으로 인해 알겠구나

<제4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저렇고도 사시사철에 푸르니 그(대나무)를 좋아하노라

<제5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추니
한밤중에 밝게 빛나는 것이 너(달)만한 것이 또 있겠느냐?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내 벗인가 하노라

<제6수>

1.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윗글의 화자는 <제2수>에서 변화하는 구름이나 바람과 달리 그치지 않는 물, <제3수>에서 꽃이나 풀과 달리 변치 않는 바위, <제4수>에서 눈서리를 모르는 소나무를, <제5수>에서 사계절 동안 푸른 대나무를, <제6수>에서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는 달을 예찬하고 있다. 윗글의 화자는 일관되게 다섯 가지 자연물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윗글은 시상을 전환하고 있지 않다.

개념 더하기⁺

- 어조: 어조란 화자의 말투를 뜻해, 모든 사람이 각자 특유의 말투를 가지듯이 작품의 화자도 특정 말투를 가지고 있어, 영탄적 어조 외에도 무언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비판적 어조, 슬픔이 묻어나는 애상적 어조 등 그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말투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3 고전시가

(1) 사대부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해야 한다.

STEP 2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P.253

1~2

화자 대상 대상의 속성 정서·태도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 시비(柴扉)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뉘 있으랴 화자가 머무는 산촌에는 눈이 와서 길이 묻힌 상태야. 이때 화자는 시비를 열지 말라며 산촌에 묻혀 지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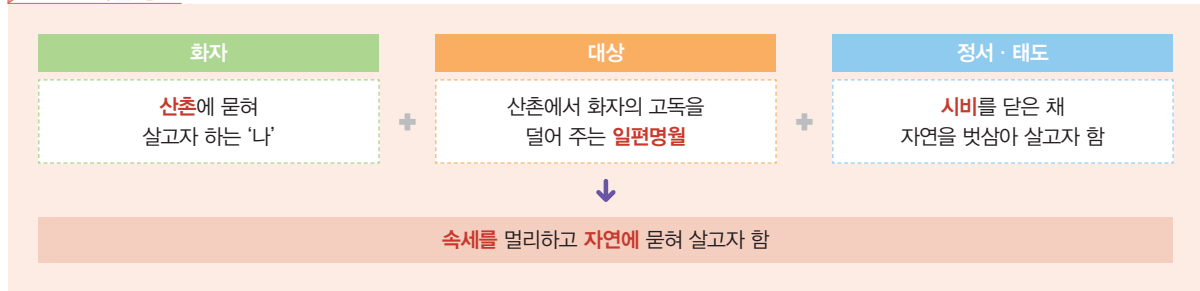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하노라 화자는 일편명월(조각달)을 친구로 여기는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있어.

- 신희, 「방옹시어(放翁詩餘)」-

[현대어 풀이]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사립문을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누가 있겠느냐
 밤중에 한 조각 밝은 달만이 내 벗인가 하노라

1분컷 작품 정리



1. ㉠에는 화자의 단절감이 담겨 있다. ⊙

문제 p.24 화자

윗글의 화자는 눈이 와서 길이 묻힌 '산촌', 즉 자연 속에 살고 있다. ㉠은 자신을 찾을 사람이 없으니 '시비(사립문)'를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이므로 자연과 속세의 단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짚고 가기 '산촌, 시비'는 앞에서 배운 단어지? 윗글에는 속세와 단절되어 자연을 벗 삼아 살고자 하는 사대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어. 그렇다면 자연과 속세 사이에 있는 '시비'를 열지 말라고 한 것에는 화자의 단절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2. ㉠에는 당초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

해설 p.12 냉소

화자는 '시비'를 열지 말라고 함으로써 속세와 거리를 두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나, 무언가를 비웃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4 고전소설

(1) 고전소설만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STEP 2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P.287

1~3

인물의 심리 장면표기

이때 춘향 어머니는 삼문간에서 들여다보고 땅을 치며 우는 말이,
 “신관 사또는 사람 죽이러 왔나? 팔십 먹은 늙은 것이 무남독녀 딸 하나를 금이야 옥이야 길러내어 이 한 몸 의탁코자 하였더니, 저 지경을 만든단 말이오? 마오 마오. 너무 마오!”
 와르르 달려들어 춘향을 얼싸안고,
 “아따, 요년아. 이것이 웬일이냐? 기생이라 하는 것이 수절이 다 무엇이나? 열 소경의 외막대 같은 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디 가서 의탁하리? 할 수 없이 죽었구나.” 춘향 어머니는 춘향을 안고 의탁할 곳이 없어졌다며 슬퍼하고 있네.
향단이 들어와서 춘향의 다리를 만지면서,
 “여보 아가씨, 이 지경이 웬일이오? 한양 계신 도련님이 내년 삼월 오신됐는데, 그동안을 못 참아서 황천객이 되시겠네. 아가씨, 정신 차려 말 좀 하오. 백옥 같은 저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니 웬일이며, 실날같이 가는 목에 큰칼이 웬일이오?” 향단은 신관 사또에 의해 칼을 차고 피를 흘리고 있는 춘향을 안타까워하고 있어. **장면 1** (중략) 이후에는 춘향의 꿈속으로 배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과 전개가 나타나니 여기서 장면을 나눌 수 있어.

(중략)

칼머리 세워 베고 우연히 잠이 드니, 향기 진동하며 여동들이 내려와서 춘향 앞에 꿇어앉으며 여쭙오되,
 “소녀들은 황룡묘 시녀로서 부인의 명을 받아 남자를 모시러 왔사오니 사양치 말고 가사이다.”
춘향이 공손히 답례하는 말이,
 “황룡묘라 하는 곳은 소상강 만 리 밖 멀고도 먼 곳인데, 어떻게 가잔 말인가?”
 “가시기는 염려 마옵소서.” **장면 2** 춘향은 꿈속에서 여동을 만나 황룡묘로 향하게 돼. 이 뒤로 본격적인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또 새로운 인물과 전개가 나타나니 장면을 나누고 가자.
 손에 든 봉황 부채 한 번 부치고 두 번 부치니 구름같이 이는 바람 춘향의 몸 훌쩍 날려 공중에 오르더니 여동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여 석두성을 바빠 지나 한산사 구경하고, 봉황대 올라가니 왼쪽은 동정호요 오른쪽은 팽려호로다. 적벽강 구름 밖에 열두 봉우리 둘렀는데, 칠백 리 동정호의 오초동남 여울목에 오고 가는 상인들은 순풍에 돛을 달아 범피종류 떠나가고, 악양루에서 잠깐 쉬고, 푸른 풀 무성한 군산에 당도하니, 흰 마름꽃 핀 물가에 갈까마귀 오락가락 소리하고, 숲속 원숭이가 자식 찾는 슬픈 소리, 나그네 마음 처량하다. 소상강 당도하니 경치도 기이하다. 대나무는 숲을 이루어 아향 여영 눈물 흔적 뿌려 있고, 거문고 비파 소리 은은히 들리는데, 십층 누각이 구름 속에 솟았다. 영롱한 전주발과 안개 같은 비단 장막으로 주위를 둘렀는데, 위의도 웅장하고 기세도 거룩하다. 춘향은 여동의 인도에 따라 황룡묘에 도착했어. 비현실적 공간으로 진입한 거지. 비현실적 공간의 배경을 묘사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네.

여동이 앞에 서서 춘향을 인도하여 문 밖에 세워 두고 대전에 고하니,

“춘향이 바빠 들라 하라.”

춘향이 황송하여 계단 아래 엎드리니 부인이 명령하시되,

“대전 위로 오르라.”

춘향이 대전 위에 올라 손을 모아 절을 하고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를 살펴보니, 제일 층 옥가마 위에 아향 부인 앉아 있고 제일 층 황옥가마에는 여영 부인 앉았는데, 향기 진동하고 옥으로 만든 장식 소리 쟁쟁하여 하늘나라가 분명하다. 춘향을 불러다 자리를 권하여 앉힌 후에,

“춘향이, 들어라. 너는 전생 일을 모르리라. 너는 부용성 영주궁의 운화 부인 시녀로서 서왕모 요지연에서 장경성에 눈길 주어 복숭아로 희롱하다 인간 세상에 귀양 가서 **부인은 춘향의 전생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인간계에 적당했다는 거야.** 시련을 겪고 있거니와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 **춘향의 미래도 예언해 주고 있네.** 마음을 변치 말고 열녀를 본받아 후세에 이름을 남기라.”

춘향이 일어서서 두 부인에게 절을 한 후에 달나라 구경하려다가 발을 잘못 디더 깨달으니 한바탕 꿈이라. **장면 3 춘향이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다시 장면을 나누어 볼 수 있어. 잠을 깨어 탄식하는 말이.**

“이 꿈이 웬 꿈인가? 뜻 이룰 큰 꿈인가? 내가 죽을 꿈이로다.” **꿈에서 깬 춘향은 죽을 꿈을 꾸었다면서 탄식하네.**

칼을 비스듬히 안고

“애고 목이야, 애고 다리야. 이것이 웬일인가?”

향단이 원미를 가지고 와서,

“여보, 아가씨. 원미 썬어 왔으니 정신 차려 잡수시오.” **장면 4 현실로 돌아온 춘향의 상황이 제시되면서 장면이 마무리되네.**

- 작자 미상, 「춘향전」-

1분컷 작품 정리

주요 인물	주요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향: 수절을 하다가 갇힘. 황릉묘로 가 부인을 만남 • 춘향 어머니, 향단: 옥에 갇힌 춘향을 보며 슬퍼함 • 황릉묘 시녀: 부인의 명으로 춘향을 황릉묘로 데려옴 • 아황 부인, 여영 부인: 춘향을 불러 전생에 대해 알려주고 춘향의 미래도 예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면 1 춘향 어머니와 향단은 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와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냄 장면 2 춘향 앞에 여동 둘이 나타나 황릉묘로 모셔 가겠다고 함 장면 3 여동들이 인도하여 간 곳에서 춘향은 부인들을 만나 전생과 미래에 대해 들음 장면 4 춘향은 꿈에서 깨어 탄식함

1. 춘향이 잠이 들어 ‘황릉묘 시녀’를 만난 것은 꿈과 현실의 연결이 일어나게 됨을 보여 주는군. ⊙

‘춘향’은 잠이 든 뒤 초월적 인물인 ‘황릉묘 시녀(여동)’의 인도에 따라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잠을 매개로 꿈과 현실이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짚고 가기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 세계로 넘어갈 때 가장 흔히 쓰이는 방식이 바로 ‘꿈’을 매개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 이처럼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이 잠에 들면서 비현실 세계로 이동하고, 잠에서 깨면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이야기 전개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2. ‘봉황 부채’에 의한 ‘구름같이 이는 바람’을 타고 ‘소상강 만 리 밖’ 황릉묘까지 춘향이 날려가는 것은 꿈속 공간의 초월적 성격을 드러내는군. ⊙

꿈속에서 만난 ‘여동’이 부친 부채가 일으킨 바람에 의해 ‘춘향의 몸 훌쩍 날려 공중에’ 올라 순식간에 공간을 이동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꿈속 공간이 초월적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이 ‘춘향이 바빠 들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춘향에게 인간 세상에 대비되는 천상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주는군.~~ ✕

해설 p.4 대비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이 ‘춘향’에게 ‘바빠 들라’고 한 것은 ‘춘향’을 환영하며 어서 오라는 뜻에서 한 말이다. ‘춘향’은 ‘여동’의 인도에 따라 황릉묘에 온 것일 뿐,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인간 세상에 대비되는 천상계의 질서가 나타나 있지도 않다.

차설, 성주 땅에 **심현**이란 재상이 있어 다만 일자(一子)를 두었으되 이름은 **의량**이라. 방년 십오에 등과 입신하여 명망이 조야에 가득하며, 심상서 지극히 사랑하여 아름다운 구수를 구할 새 **추상서 집 처녀**의 용모 재질이 매우 뛰어난을 듣고 매파를 보내어 통혼하니, **추상서** 또한 이왕 심의량의 문장 조화가 출중함을 아는고로 허락하여 보내고 즉시 **소저**를 불러 심상서 집 사연을 이른다, **소저** 듣기를 마치고 **얼굴빛을 달리하며** 대왈, **추상서의 말을 듣고 추소저의 얼굴빛이 달라졌네.**

“소녀 일찍 아뢰지 못함은 여자의 도리에 당돌하온고로 자연 미루어 지체하였더니, 이제 대인 말씀을 듣사오매 어찌 숨거리이까? 소녀 운향사에 갔을 때에 남양 땅에 있는 **양상서**의 아들 **산백**을 만나 삼년 함께 고생하였는데, 정의 상합하여 천지계 맹서하여 **사생간(死生間)** 서로 저버리지 말자 하오되 다만 종적을 속였삽더니, **양생**은 본래 총명이 과인한고로 소녀의 본적을 살피우고 **춘정(春精)**을 금치 못하며, 소녀 급히 도망하여 집으로 오면서 벽상에 이별시를 기록하여 언약을 잊지 말자 하옵고 왔사온즉, **추소저와 양생은 운향사에서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어. 추소저는 집으로 오면서 서로 저버리지 말자고 했던 언약을 잊지 말자는 말을 남기고 왔네.** 비록 예를 이루지 아니하였사오나 맹약은 이미 하였으며, 부모 아직 양생을 못 보신지라, 조만간에 양생이 찾아오리니, 바라옵건대 부모는 소녀의 깊은 정회를 살피소서.”

하거늘, 상서 대로 왈,

“내 집이 비록 패망하나, 너 같은 불효녀를 두어 문호에 욕되게 할 줄 어찌 생각하여 헤아렸으리요. 다시 이런 말을 내지 말라.” **추상서는 추소저에게 문호를 욕되게 했으며 크게 화를 내고 있어.**

하니, 소저 황급 왈,

“소녀의 맹세를 위하여 규중 처자로 올바른 도리를 다함에 응하고자 함이오니, 이제 **소녀 하온 말씀은 정절에 마땅** **[A] 하온 바이어늘 어찌 문호에 욕된다 하시나니이까.** 비록 맹약이라도 중도에 약속을 저버리건대 이 또한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옵으니, 부모는 다시금 생각하소서.” **추소저는 양생과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고 있어.**

하고, 침소에 돌아와 심중에 헤오되,

① **‘부명(父命)을 좇은즉 절개를 잃음이요, 좇지 아니한즉 불효되리니, 차라리 내 몸이 죽어 혼백이라도 양생을 의지 하리라.’** **추소저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양생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지키려 해.**

하고 베개를 의지하여 누웠더니, 문득 시비 들어와 양생의 말을 일일이 고하거늘, 소저 부모 알까 생각하여 시비로 하여금 후원 앵춘당으로 양생을 인도하라 하고, 내당에 들어가 부친께 고왈,

“운향사의 지주 고향대 양생이 왔다 하오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부친은 한번 봄을 허락하소서.”**

상서 노왈,

“네 끝내 아버리를 가버이 여겨 이런 말을 하는데, 누구 빨리 **양생을 쫓아 보내라.**”

하니, 소저 슬피 울며 왈,

“이제 그가 불원 천리하고 왔삽거늘, **어찌 박절히 쫓아 보내리이까.**”

한대, 상서 듣기를 마치고 헤오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잠깐 보게 하리라.’**

하고 비로소 허락하니, **추소저의 말대로 양생이 직접 찾아왔어. 양생을 보게 해달라는 추소저의 말에 화를 내던 추상서는 울며 설득하는 추소저의 간절함에 둘이 잠시 만날 수 있게 해 줬어.** 소저 침소에 돌아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단장을 고치고 후당에 나아가 양생을 맞아 예절을 갖추어 마주 대하니 양생이 눈물을 머금으며 왈,**

“내 남자를 이별한 후 무성한 근심으로 세월을 허비하다가 만 가지 즐거움이 소용이 없고 헛되이 근심하여 가오니, 남자는 이 사정을 어여뻐 여기소서.” **양생 역시 추소저와 헤어진 뒤 추소저를 그리워했구나.**

하더라. **[장면 1] 심의량과 혼례를 올리게 될 상황에서 기다리던 양생과 재회한 추소저의 상황이 그려진 장면이야.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는 끝내 맺어지지 못한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현실에서 비현실적 공간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니, 여기서 장면을 끝낼 수 있어.**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의 반대로 추소저가 양생의 구애를 거절하자 양생은 추소저가 왕래하는 길가에 자신을 물어줄 것과 자신의 편지를 추소저에게 전해 달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는다. 추소저는 심의량과의 혼례 후 양생의 죽음을 알게 되어 신행을 핑계로 양생의 무덤에 가서 제문을 올린다. 그때 갑자기 무덤이 갈라지고 추소저가 무덤 안으로 뛰어들자 신행을 따라가던 일행은 당황해 한다. 한편 추소저는 죽어 양생을 만나게 되고 둘은 함께 **지장왕** 앞에 이르게 된다. **추소저와 양생은 저승이라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재회한 거네.**

1분컷 작품 정리

주요 인물	주요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소저: 맹약을 한 양생의 죽음을 알고 양생의 무덤 안으로 뛰어듦 · 추상서: 추소저와 양생의 만남을 반대하다가 딸을 잃은 뒤 후회함 · 양생: 추소저와 사랑에 빠졌지만 구애를 거절당하자 유언을 남기고 죽음. 저승에서 추소저를 만나 함께 이승으로 돌아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 1 추소저는 부모님께 과거 양생과 맹약을 했다고 고백했지만 추상서는 둘 사이를 반대함 · 장면 2 저승에서 만난 추소저와 양생은 지장왕의 명에 따라 이승으로 돌아감 · 장면 3 추소저의 죽음을 슬퍼하던 추상서 부부는 살아 돌아온 추소저와 양생을 만나 기뻐함

작품의 표현상 또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정답률 68%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 ① 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 p.157 요약적 제시

'추소저'는 '추상서'에게 '소녀 운향사에 갔을 때에~언약을 잊지 말자 하옵고 왔사온즉,'에서 양생과 인연을 맺었던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소녀 양생과 더불어 전생 인연이 있삽기로~이러므로 우리 양인이 환생하오니'에서 전생의 일과 죽은 뒤 저승에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② ~~구체적인 시대~~를 언급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뒷글에 구체적인 시대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③ ~~삽입~~의 내용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추소저'가 '추상서'에게 양생과 헤어지며 '이별시를 기록하여 언약을 잊지 말자' 했다고 하기는 했으나, '추소저'가 적은 이별시가 삽입 시로서 작품에 수록된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 ④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인물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제 p.110 언어유희

문제 p.106 해학

언어유희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인물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낸 부분도 찾을 수 없다.

- 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문제 p.28 서술자

뒷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일관되게 서술되었으며, 서술자의 교체나 다양한 관점의 사건 해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의 내용에 대한 사실적·추론적 이해를 묻는 문제 정답률 62%

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 ⑤ [A]는 자신의 주장이 정절에 어긋나지 않음을 내세우며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고, [B]는 현재와는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A]에서 '추소저'는 자신이 하는 말이 '정절에 마땅'하다고 밝히며 '추상서'가 '다시금 생각하'여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고, [B]에서 '상서' 부부는 '추소저'의 말에 따라 '양산백을 찾아 결혼'시키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A]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밝히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고, [B]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 보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표출~~하고 있다.

[A]에서 '추소저'는 '양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규중 처자로 올바른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B]에서 '상서' 부부는 과거를 돌이켜 보며 '추소저'와 '양생'의 만남을 반대했던 일을 후회할 뿐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지는 않았다.